



당당하게 청렴하게

박영진

“공(公)은 공이고 사(私)는 사다. 이것을 반드시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 술 한 잔 거나하게 걸치고 집에 돌아오시면 아들인 나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다. 사실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고 그저 술에 취해 하시는 말 인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덧 30여 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이제는 들을 수 없는 그 말이 세상의 참 이치였음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10년 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운전면허시험장이 첫 직장이 되었고, 입사 후 2년 뒤에는 운전면허 시험관이 되었다. 그때 부장님은 매일 회의시간마다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행동강령을 강조하셨다. 시험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고 작은 것이라도 응시생이 주는 금품 등은 받지말고 공정하고 안전한 운전면허시험 감독에 애써줄 것을 항상 당부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매일같이 하던 대로 시험용 차량 및 채점용 컴퓨터를 점검 한 후 내게 배정된 응시생 이름을 호명하고 신분증을 확인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인 이름을 부르고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어르신께 신분증을 받는 순간 신분증과 함께 접힌 봉투도 같이 건네 주셨다.

“선생님, 이게 뭔가요?”

“에이.. 아시면서... 한번만 봐 주세요.”

나는 순간 어안이 빙빙했다. 내게 돈을 건네신 어르신은 하루라도 빨리 면허증을 취득하시고자 나에게 봉투를 건네신 것 같다.

“나를 어떻게 보고... 설마 이분 내가 이 봉투를 받고 운전면허시험을 합격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

짧은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나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어르신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접힌 봉투를 어르신 손에

부드럽게 쥐어드리며 말씀드렸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운전면허시험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수동으로 채점한다고 해도 이런 뒷돈이 들은 봉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실력으로 시험보시고 채점 받으세요.”

어르신은 겸연쩍은 듯 내게 건네주었던 돈은 다시 주머니에 넣고 다소 불안한 표정으로 차량에 승차했다. 시험이 시작되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채점에 임했다.

도로 주행 중 차량이 교차로 부근으로 진행 중이었다. 시험용 차량은 약 40km/h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신호등은 파란색이었다. 교차로 전이라 속도를 줄여야 할 텐데 할아버지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 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파란색이던 신호등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주행하던 시험용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을 했다. 신호위반 이었다. 내면에서 조그만 갈등이 다시 일었다. ‘여기서 실격 시키면 어르신께서 아까 건넨 봉투에 대한 보복이나 거부감 때문에 일부러 자기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오해하진 않을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냥 눈감아드릴까?’

이대로 계속 시험을 진행하면 어르신은 합격이었다. 어르신께 합격을 드리면 어르신은 기분 좋게 면허증을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시험에 떨어지면 어르신은 자신이 시험에 떨어진 것에 기분이 나빠 내게 항의할 것이다. 갈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앞만 보고 운전하는 어르신께 얘기했다.

“선생님, 방금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등에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셨기 때문에 신호위반 실격입니다. 도로 우측으로 차를 세워 주세요.”

내 지시를 들은 할아버지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예? 신호위반이라고요? 제가 왜 신호위반입니까?”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어르신, 도로교통법 상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도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는데 그대로 통과하셔서 신호위반인 겁니다.”

“아니 황색등으로 갑자기 바뀌는데 어떻게 정지를 해요. 그렇게 급정지를 하다가 뒤차가 우리차를 박을 수도 있잖습니까? 감독관님은 정지할 수 있겠어요?”

나는 침착하게 다시 설명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교차로 전에 속도를 올리고 가면 정지 못합니다. 전방 녹색 신호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신호라는 점을 인식하고,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금 줄여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르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여주며 설명을 해주었다. 내가 실격버튼을 누르려 하자 이번엔 어르신께서 태도를 바꾸어 말씀하셨다.

“감독관님. 제가 운전만 20년을 넘게 한 사람이에요. 술 한 잔 먹고 면허취소가 돼 버려서... 운전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참 힘듭니다. 빨리 면허를 따야 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순간 어르신 눈가의 주름살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뻘 되시는 분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나는 들어 줄 수가 없었다. 아버지께서 매일 하시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공(公)은 공이고 사(私)는 사다.’

아버지 같은 분에게 인간적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눈감아 주고 싶은 것은 내 사적인 감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시험관으로 업무에 임할 때에는 법을 집행하는 공인이기에 아버지 말씀대로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면서 선생님께 합격도장을 찍어드릴 순 없어요. 그게 제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오늘 어떤 점이 부족하였는지, 어느 코스에서 주의하여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나는 어르신을 실격시키고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복귀했다. 어르신은 아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내가 어떤 지점에서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자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았고, 잘 알겠다며 무뎠던 표정으로 돌아가셨다.

며칠 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로주행 업무를 했고, 쉬는 시간이 되어 사무실로 이동하려고 걷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뒤돌아보니 얼마 전 내게 시험을 보았다가 신호위반으로 실격한 할아버지였다.

“감독관님! 오늘 시험을 다시 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저번에 시험 봤을 때 감독관님께서 주의하라고 알려주신 게 도움이 많이 되어서 오늘은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정말요? 잘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나는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풀어내렸다. 그렇지 않아도 불합격한 어르신이 자꾸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돈 넣은 봉투로 쓸데없는 행동을 한 것도 용서해주십시오. 마음이 급하다보니 젊은 분께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얼마나 사정이 급하셨으면 그러했겠어요. 그래도 연습 잘 하셔서 실력으로 면허증 취득하셨으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다음부터 술 드시고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가셨다. 그의 환한 미소에서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며 ‘그래, 잘 했다.’라고 웃어주시는 것 같았다. 참으로 맑고 포근한 날이었다.